



야구, 지면 탈락... 오늘 일본과 살얼음 승부

1패 안고 슈퍼라운드... '사회인리그 대표팀' 불구 방심 못해 한국, 대만·홍콩 낫선 투수에 고전...정교한 제구력 돌파 관건

선동열 한국 야구대표팀 감독은 "이제는 매 경기 가 결승전"이라고 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B조 2위로 밀려 1패를 안고 슈퍼라운드에 나서는 한국은 "패하면 탈락"이라는 위기감 속에 그라운드에 선다.

슈퍼라운드 첫 상대 일본에 대한 경계심도 커졌다. 한국은 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겐라라 봉카르노(GBK) 야구장에서 일본과 슈퍼라운드 첫 경기를 치른다.

31일 중국전이 남아 있지만, 일본전에서 패하면 한국의 결승 진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진다.

B조 1위 대만과 A조 1위 일본이 1승을 안고 슈퍼라운드에 돌입해, 한국은 이미 출발부터 밀린 상태다. 일본은 A조 예선 3경기를 모두 콜드게임으로 끝냈다. 일본프로야구 선수가 단 한 명도 합류

하지 않은 '사회인리그 대표팀'이지만, 한국도 방심할 수는 없다. 한국은 이미 프로 선수보다 실업리그 선수가 많은 대만에 1-2로 패한 아픈 경험이었다.

일본 야구대표팀 경기를 지켜본 온 허구연 MBC 해설위원은 "일본이 대만보다 낫다"고 말했다. "투수력이 조금 떨어지지만, 야수의 수비와 주자들의 베이스러닝 등 기본기가 탄탄한 팀"이란 게 허위원의 평가다.

승리의 열쇠는 타선이 쥐고 있다. 한국 타자들은 26일 대만전에서 상대 투수진에 처절하게 당했다. 인도네시아(15-0), 홍콩(21-3) 등 약체를 상대로 안타를 쏟아내긴 했지만, 정교한 제구력을 갖춘 일본 투수를 상대로는 맹타를 장담할 수 없다.

선 감독은 "김현수, 박병호, 김재환 등 중심 타자들이 압박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메이



선동열 감독

26일 파키스탄전에서 4이닝을 소화한 오카노 유이치(도시바)가 한국전 선발로 예상되는 일본 투수다. 두 투수 모두 우완이다.

두 투수의 구위는 KBO리그 투수보다는 떨어진 다. 하지만 대만전에서 낫선 투수에 고전했던 한국으로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연합뉴스

저리그를 경험한 김현수와 박병호, KBO 리그를 대표하는 좌타 거포 김재환 등이 상대 투수를 압박해야 경기를 쉽게 풀어 낼 수 있다.

예선전에 등판하지 않은 사타케가쓰토시(도요타)와

머리에 공 맞은 안치홍 '이상無'

'국가대표' 안치홍(KIA)이 한숨을 돌렸다. 안치홍은 지난 28일 열린 홍콩과의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B조 예선 3차전에서 3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했다.

대표팀의 주축 타자로 맹활약하고 있는 안치홍은 이날 첫 타석에서도 볼넷으로 출루한 뒤 두 번째 타석에서는 2루타를 터트렸다. 그리고 4회에는 희생플라이로 타점까지 울리며 상승세를 이어 갔다. 하지만 9회 다섯 번째 타석에서 안치홍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상대 투수가 던진 공이 그대로 머리에 향하면서 안치홍이 주저앉았다. 고통을 호소한 안치홍은 결국 대주자 이재원과 교체됐다.

정우람(한화), 김하성(넥센), 오지환(LG)이 장염에 걸리면서 비상이 걸렸던 대표팀에 생긴 또 다른 약재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타격에서 물론 수비에서도 안치홍의 비중이 크다. 리그를 대표하는 2루수인 안치홍은 '장염 여파'로 지난 27일 인도네시아경기에서 3루수로 등장했다. 두 유격수가 동시에 경기에 나서지 못하면서 황재균(KT)이 유격수 자리로 이동을 했고, 안치홍이 3루를 맡은 것이다.

'멀티 논란'으로 앞선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2차 엔트리 탈락이라는 수모를 겪었던 안치홍은 4년 뒤 맞은 이번 대회에서는 팀의 중심타자이자 멀티플레이어로 역할을 하고 있다.

안치홍은 29일 "그냥 공이 바로 머리에 맞는 느낌이었다. 후이 심하게 나서 검사를 받았다"며 "다행히 어제는 어지럽고 울렁거리는 것도 없었다. 지금은 괜찮고, 후도 많이 들어갔다"고 자신의 상태를 전했다.

여자 유도 일본 넘었다

정보경, 연장 승부 끝 48kg급 금

한국 유도 여자 48kg급 간판 정보경(안산시청·세계랭킹 16위)이 2년 전 올림픽 은메달의 아픔을 자카르타에서 씻었다.

정보경은 2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유도 여자 48kg급 결승에서 일본 곤도 아미(7위)를 연장 승부 끝에 골든 스코어 절반으로 꺾었다.

그는 연장전 1분22초 업어치기 절반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보경은 경기 초반 상대 선수와 힘 싸움을 벌이며 기회를 엿보다 업어치기를 연속으로 시도했지만, 효과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후에도 매치기 등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는데, 점수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경기 종료 16초 전 업어치기도 마찬가지였다.

정보경은 4분 동안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연장전을 펼쳤다. 그는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임하다 되치기를 당했다. 연장 50여 초에 왼팔 압박에 걸리며 위기를 겪었지만 위기를 탈출하고 다시 일어났다.

승부는 연장전 1분 22초에 걸렸다. 정보경은 업어치기를 시도해 절반 판정을 받으며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정보경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당시 4강전에서 무릎을 꿇었던 상대가 곤도 아미다. /연합뉴스

정구, 알고보니 효자였네

남자 단식 3회 연속 금...육상 女 창던지기 16년만에 동메달

한국 정구 남자단식에서 3회 연속 금메달이 나왔다. 여자 창던지기에서는 16년 만에 메달이 나왔다.

김진웅(28·수원시청)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정구 남자단식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진웅은 29일 인도네시아 팔렘방 자카바링 스포츠 시티의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정구 남자단식 결승에서 알렉산더 엘버트 시(인도네시아)를 4-2로 꺾고 우승했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2010년 광주우 이요한, 2014년 인천 김형준에 이어 아시안게임 정구 남자단식에서 3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 정구에는 금메달 5개가 걸려 있으며 30일에는 혼합복식 금메달의 주인공이 가려진다. /연합뉴스

김경애(30·대전광역시청)는 육상 여자 창던지기에서 동메달을 땀다.

아시안게임 여자 창던지기에서 한국 선수가 메달을 딴 건 2002년 부산 대회 이영선(금메달) 이후 16년 만이다.

김경애는 지난 28일 열린 결선에서 56m74를 던져 3위에 올랐다. 5차 시기까지 최고 56m00으로 4위를 달리던 김경애는 마지막 6차 시기에서 74cm를 올려 56m46을 던진 사이토 마리나(일본)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

김경애는 2010년 광주우에서 4위로 아쉽게 시상대에 서지 못했고, 2014년 인천에서는 6위에 머물렀다. 세 번째 도전한 아시안게임에서는 값진 메달을 얻었다. /연합뉴스

'우생순' 감동은 쭈욱~

여 핸드볼 오늘밤 중국과 결승...남녀농구 준결승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자카르타에서도 '우생순(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감동을 이어간다.

이계정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30일 오후 8시 중국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결승전을 치른다.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2연패에 도전한다. 한국은 1990년 베이징 대회에서 초대 챔피언에 오른 이후 2006년 도하 대회까지 5연패를 달성했다.

2010년 광주우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해 연속 우승 기록이 끊겼지만, 2014년 인천대회에서 다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자존심 회복에 성공했다.

남자 농구대표팀과 여자농구 단일팀은 나란히 준결승을 치른다.

하재 감독이 이끄는 남자 대표팀은 이란과 결승 티켓을 놓고 싸운다. 이란은 하메드 하다디 등 최강의 전력으로 팀을 꾸린 이번 대회 우승 후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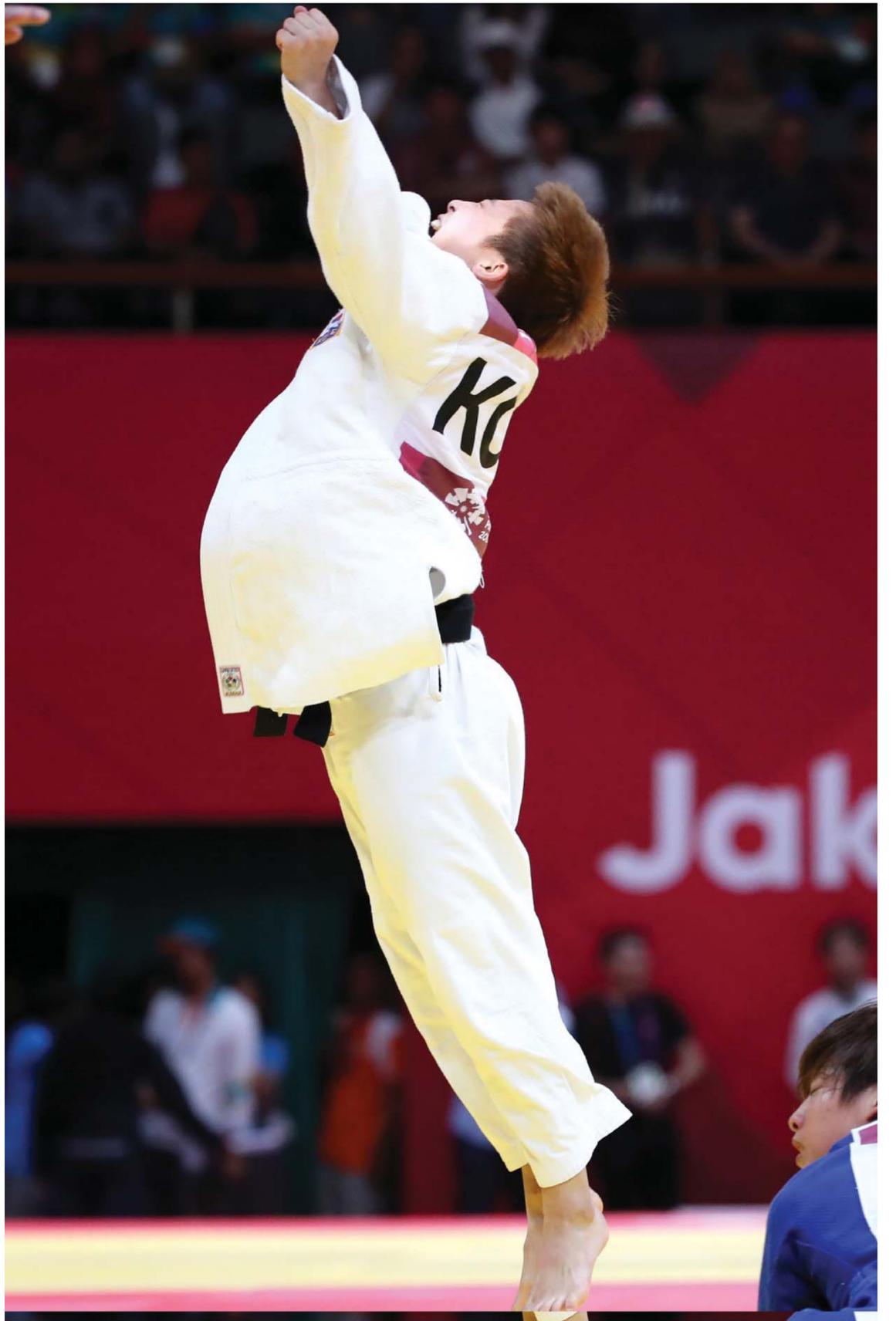
귀화선수 라건아(미국명 리카르도 라틀리프)와 하다디의 골 밑 싸움이 이날 경기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여자농구 남북 단일팀은 조별리그에서 석패했던 대만을 상대로 복수전을 노린다.

단일팀은 미국 여자농구(WNBA) 일정을 마치고 합류한 박지수와 북측 로숙영의 제공권을 앞세워 대만을 공략한다는 생각이다.

'효자중목' 유도에서는 금메달을 노린다. 재일동포 3세 유도선수 안창림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일본 오노 쇼헤이가 버티고 있는 남자 73kg급에 출격한다.

수영 남자 다이빙 간판 우하람은 남자 1m 스프링보드에서 메달에 도전한다.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목에 걸면 우하람은 한국 최초의 아시안게임 2개 대회 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연합뉴스



으랏차차~ 한국 유도

29일 오전 (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유도 여자 48kg급 결승에서 정보경이 일본의 곤도 아미를 꺾고 금메달을 획득한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